

추량의 조동사 「む(ん)」에 대한 일고찰

- 오토기조시(御伽草子)의 용례를 중심으로 -

이수향*

lee_suhyang@hanmail.net

차례

- I. 서론
- II. 본론
 1. 「む」의 의미 용법
 2. 오토기조시(御伽草子)의 성격
 3. 의미용법의 분류
 4. 조사방법
 5. 조사결과 및 고찰
- III. 결론

요지

本稿は、室町から江戸時代にかけて編纂された『御伽草子』を対象にし、「む」の特徴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まず『御伽草子』の用例を集めて分析し、次にその用例を四つの意味用法に分け、どの意味用法が多く用いられるのかを調べた。その結果、『御伽草子』23編に現れた「む」の用例は全部で406例で、そのうち「推量」の意味が82例(21.2%)、「意志・決意・希望」が265例(65.3%)、「勧誘・適当・命令」が14例(3.4%)、「婉曲・仮定」が36例(8.9%)であった。この結果の中で特に注目するものは、「む」の用法の中で「意志・決意・希望」が最も多く現れるということで、「む」が語形変化した形態の「う」が近世江戸前期には推量と意志を表したが、後期には意志を表すことが多くなったということと脈を同じく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すなわち、室町時代中期においてすでに「む」の意味用法は「意志」の用法がかなり高い比率を占めており、これが「う」の形態に変わっても、意味用法においては「む」の意味用法がそのまま受け継がれたと考えられる。

また、「む」の意味用法が使われる基準についても考察を行った。上接する用言(動詞)による分類であるが、上接する動詞の性質によって[「む」の意味がどのように分類されるのか]を調べてみた。その結果、「む」の意味用法を分類する際、上接する動詞の性質(意志動詞・無意志動詞)だけで分類すると、例外の用例が多く現れるので、一般化するのが難しい。従って、それ以外の要素(例えば、「む」の直前にくる助動詞との関係)も考慮に入れて調べ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

今後は、江戸前期・中期・後期の各時期に成立した資料に現れた「う・よう」の意味と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比較・分析して意味用法の変化様相を探ってみたい。また、「む」の意味用法の分類においても、先行研究に現れた分類方法の欠点を補って考察を行いたい。

키워드 : 「む」의 의미, 의미용법의 사용조건, 앞에 접속하는 용언(동사)의 성질

1. 들어가며

추량표현이란 어떤 사항에 대해 확실히 단언하지 않고 추량하여 말하는 표현으로, 고전어에서는 조동사가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전어에 있어서의 추량의 조동사는 「む」, 「むず」, 「らむ」, 「けむ」, 「めり」, 「まし」, 「らし」, 「べし」, 「じ」 「まじ」, 전문추정의 「なり」가 있다. 이들 조동사 중에는 이미 소멸되어 버린 것도 있고, 「む」와 같이 「う」 「よう」로 음운변화를 거쳐 잔존하는 것도 있다. 「む」는 대표적인 추량의 조동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나라(奈良) 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으로서 형태는 조금 변했으나 현대어에서도 「う」 「よう」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う」와 「よう」는 에도(江戸) 전기에는 추량과 의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후기에 이르러 의지에서는 「う・よう」로, 추량에서는 「だろう」로 그 용법이 변화되었다¹⁾. 「む」가 형태변화한 「う」의 용법으로 남아있는 것은 현대어에서는 「의지」만으로, 가정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あろうことか」와 같은 고정적인 표현이나 「花の散ろう時」와 같은 번역적인 표현에 한정된다²⁾.

이렇게 의미가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시기와, 에도(江戸) 후기에 이르러 「의지」의 의미가 많아지는 것은 시대적인 특징에 기인한 현상인가 아닌가는 고찰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각각의 의미용법이 쓰이는 조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견해가 달리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 하나가 선행연구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접속하는 용언(동사)에 따른 분류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무로마치(室町)시대부터 에도(江戸)시대에 걸쳐 편찬된 『오토기조시(御伽草子)』를 대상으로 하여 중세 중기에서 근세 초기

1) 金田一春彦 外(1988) 『日本語百科辞典』 「推量の助動詞」 大修館書店

2) 秋本守英・山口明穂(2001) 『日本語文法大辞典』 明治書院 pp.768-769

에는 「む(ん)」가 주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의미용법이 사용되는 조건에 대해 검토를 하고자 한다.

『오토기조시(御伽草子)』란 넓은 의미로는 무로마치(室町)시대부터 에도(江戸)시대 초기에 걸쳐 만들어진 수백의 단편 소설의 총칭이며, 좁은 의미로는 에도(江戸)시대의 초기내지 중기 무렵에 오사카의 서점 「시부가와세에몬(渋川清右衛門)」이 널리 읽혀진 23편을 골라 그림을 삽입한 요코본(横本)의 형식을 취하여 『御伽草子』 또는 『御伽文庫』라는 이름으로 간행한 것을 가리킨다.³⁾ 이 오토기조시는 부인과 아이들의 읽을거리(讀物)로서 널리 읽혀져 여러 번 재판되었으나, 초판이 발행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며, 대략 간분(寛文, 1661-72) 또는 그 이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각각의 작품의 성립연대도 거의 분명하지 않으나, 이 보다는 훨씬 이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토기조시(御伽草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조동사 「む(ん)」가 「う」「よう」의 형태로 변화하여 나타나는 시기가 무로마치(室町)시대 중기 이후이고 근세 에도(江戸)시대 전기에는 그 형태가 정착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에 편찬된 『오토기조시(御伽草子)』는 그 의미 용법의 양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2. 「む」의 의미 용법 및 조사방법

나라(奈良)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む」는 무로마치(室町) 시대 후기에는 「ん」이 되고, 여기서 어형변화를 한 「う」가 인세·가마쿠라(院政·鎌倉) 시대에 나타난다. 그리고 무로마치(室町) 시대로 오면 「う」가 점차 세력을 얻어 중기 이후는 구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게 되고 이에 따라 현대어의 조동사 「う」로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무로마치(室町) 후기에 나타나는 「よう」도 에도(江戸)시대에는 어형이 완성되어 「よう」와 함께 이용되었다. 그리고 에도(江戸) 후기에는 추량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だろう」의 형식이 발생하여, 「だろう」의 일반화에 의해 「う」는 의지 표현, 「だろう」는 추량표현으로, 표현을 분담하는 경향이 생겨나, 메이지(明治) 시대에는 이것이 정착하였다.

3) 佐藤喜代治(1983) 『国語学研究辞典』、明治書院 p.600

아키모토(秋本, 2001)에 의하면 「む」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예상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그 모습을 상상하거나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앞에 접속하는 용언의 종류, 그 문장의 주어(인칭), 뒤에 접속하는 단어(語)의 종류 등에 의해 크게 4가지 의미로 나뉜다.

- 1) 추량 - 그 사항이 실현되는 것을 예상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 사항이 제 3자에 관한 미래의 사항으로, 주어가 제 3자(3인칭)가 되고 앞에 접속하는 용언이 무의지 동사인 경우가 많다. 또 연체형 「む」가 문말에 이용되면 이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 2) 의지·결의·희망 - 그 사항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와 실현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낸다. 그 사항이 화자에 관한 미래의 일로 주어가 화자(1인칭)가 되고 앞에 접속하는 용언이 의지동사인 경우가 많다.
- 3) 권유·적당·명령 - 상대가 그렇게 하는 것을 화자가 희망하고, 상대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 사항이 청자에 관한 미래의 일로, 주어가 청자 또는 부르는 대상이 되고 앞에 접속하는 용언이 무의지 동사인 경우가 많다. 또 헤이안(平安) 시대의 회화문에서는 「こそめ」의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 4) 완곡·가정 - 사실로서 그대로 말해도 좋은 것을 불확실한 것, 가정적인 것으로서 표현하는데 이용한다. 「む」가 연체형으로 뒤의 체언의 연체수식어가 되든지, 준체적으로 이용하여 뒤에 조사가 붙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む」가 「추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앞에 접속하는 용언이 무의지 동사인 경우가 많고, 「의지·결의·희망」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앞에 접속하는 용언이 의지동사이며, 「권유·적당·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앞에 접속하는 용언이 무의지동사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이소카제 사부로(五十嵐三朗, 1958)도 「助動詞の意味-動詞との關係」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추량의 조동사가 의지를 나타내거나 추량을 나타내거나 하는 것은. 그 조동사 자체가 갖는 의미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조동사가 접속하는 동사의 성질에 의한 것이다.»⁴⁾

4) 「推量の助動詞が意志を表したり推量を表したりするのは、その助動詞自体のもつ意味合いと

그러나 아키모토(秋本, 2001)의 정의는 조사 자료에 따라서는 예외가 많이 나타나 일반화하기 어렵다. 와다(和田, 1993)에 따르면 의지 동사에 접속하는 「む」가 반드시 「의지」를 나타낸다고 하기는 말하기 어렵고, 또 무의지 동사에 접속해도 추량이 아니라 의지라고도 파악되는 예가 있다. 기쿠치(菊知, 1996)도 또한 앞에 접속하는 동사에 따라 「む」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む」직전에 오는 조동사의 관계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む」의 앞에 접속하는 동사의 성질을 조사하여, 앞에 접속하는 동사에 따라 의미용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다음의 2가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위의 분류기준에 따라 「오토기조시(御伽草子)」로 간행된 시부가와본(渋川本) 23편과 다른 5편으로 이루어진 日本古典文学体系 『御伽草子』를 텍스트로 이용하여, 그 중에서 좁은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오토기조시(御伽草子)」라고 불리는 작품 23편만을 대상으로 하여 「む(ん)」의 용례를 조사한 후 먼저 4가지 의미용법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 23편의 작품 중에서 「む」의 용례가 많이 나타나고 추량과 의지의 의미가 많이 나타난 6개의 작품(文正さうし, 鉢かづき, 唐糸さうし, 蛤の草紙, 梵天国, 酒吞童子)을 대상으로 하여 앞에 접속하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 각각의 의미용법을 분류하였다.

3. 조사결과 및 고찰

3.1 「む」 의미 분석

오토기 조시 23편에 나타난 「む」의 용례는 전부 406예로, 「추량」의 의미가 86예(21.2%), 「의지·결의·희망」이 265예(65.3%), 「권유·적당·명령」이 14예(3.4%), 「완곡·가정」이 36예(8.9%)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む」의 의미 용법 중에서 「의지·결의·희망」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점이다. 이것으로, 「む」의 의미는 본래의 4가지 의미에서

いうよりは、むしろその助動詞の接続する動詞の性質によるものである。」

2가지 의미로 축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본래 가장 많이 쓰이고 있었던 「추량」의 의미는 감소하고 「의지·결의·희망」의 의미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결과로부터 무로마치(室町) 시대에도 이미 「む」의 의미용법은 「의지·결의·희망」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지」의 의미가 많아지는 것은 에도(江戸) 후기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む」가 「う」로 형태는 변했어도 의미 용법에서는 「む」의 의미가 그대로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후기에 오면 올수록 이처럼 「う」의 의미 용법이 의지만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해지자, 여기서 형태 분화한 「だろう」의 형태가 추량의 의미를 전담하는 형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う・よう/だろう」로 분리되는 의지와 추량의 어법의 분화는 이미 이 시기에 나타나는 경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의미용법에 대한 대표적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추량]

- (1) 大宮^{みやとの}司^じ殿^{どの}も心^{こゝろ}の中^{うち}は、きこそおぼしめさん (文正さうし p.39)
- (2) 遠国へ下らん事もしろしめさず、あとにて歎き給はんことよと、歎き御涙ぐみ給へば (文正さうし p.42)
- (3) お主のご恩を忘れ申さんや (唐糸草子 p.131)

[의지·결의·희망]

- (4) 宮仕^{みやづか}へしけれども、心^{こゝろ}をみんとや思^{おも}はれけん (文正さうし p.29)
- (5) あまりにたよりなく候へば、商^{あきな}ひしてみ候はんと申^{もう}(し)ければ (文正さうし p. 31)
- (6) しばしが程の命を助^{たす}かり候はんと歎きけり (梵天国 p.276)

[권유·적당·명령]

- (7) いづかたへなりとも共に^い出でん (鉢かづき p.75)
- (8) 夜もすがら酒盛^{さかもり}せんとぞ申されける (酒呑童子 p.371)
- (9) 急ぎ座敷を清め、こなたへ迎^{むか}え申さんとのたまひければ (蛤の草紙 p.216)

[완곡·가정]

- (10) 來^こんまでとのかたみの枕と^{みえたけ}笛竹をとり添持ちて、 (鉢かづき p.72)
- (11) 落ちすまし候はん事、なかなかかなはぬもの故 (梵天国 p.284)
- (12) 今死せんこと残り多し (二十四考 p.250)

〈표 1 오토기조시에 나타난 「む」의 의미용법〉

	작품명	추량	의지·결의·희망	권유·적당·명령	완곡·가정	계
1	文正さうし	7	16	2	8	33
2	鉢かづき	11	32	2	5	50
3	小町草紙	1	3	0	0	4
4	御曹子島渡り	2	20	0	2	24
5	唐糸さうし	7	19	0	0	26
6	木幡狐	5	8	0	3	21
7	七草草紙	0	2	0	0	2
8	猿源氏草紙	9	11	0	0	20
9	物くさ太郎	1	11	1	1	14
10	さゞれいし	2	3	0	0	5
11	蛤の草紙	7	25	2	4	38
12	小敦盛	1	6	2	0	9
13	二十四考	4	10	0	2	16
14	梵天国	8	13	1	5	27
15	のせ猿さうし	2	6	0	2	10
16	猫のさうし	5	12	0	0	17
17	浜出草紙	1	0	0	0	1
18	和泉式部	2	2	0	0	4
19	一寸法師	2	4	1	0	7
20	さいき	0	10	0	1	11
21	浦島太郎	3	11	1	1	16
22	横笛草紙	3	10	0	1	14
23	酒吞童子	3	31	2	1	37
계		86	265	14	36	406

3.2 앞에 접속하는 동사의 성질에 따른 의미분류

앞에서 서술한 6편의 작품(文正さうし, 鉢かづき, 唐糸さうし, 蛤の草紙, 梵天国, 酒呑童子)을 앞에 접속하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 의미를 분류한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2 앞에 접속하는 동사와 의미용법의 관계〉

	추량	의지·결의·희망	권유·적당·명령
의지 동사	24	135	7
무의지 동사	15	1	0
계	39	136	7

대표적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1) 추량의 경우

- (13) あとにて歎き給はんことよと、歎き御涙ぐみ給へば
 (文正さうし p.42) (의지동사)
- (14) 冥加につきなんと申し給へば
 (文正さうし p.71) (무의지동사)

2) 의지·결의·희망의 경우

- (15) 文正出居に出(で)て、此人々に、酒をすゝめんとて、
 (文正さうし p.64) (의지동사)
- (16) 御命に代らんと思ひきり、参りて候ふ
 (唐糸草紙 p. 139) (무의지동사)

3) 권유·적당·명령

- (17) たゞその寶たからを神佛かみほとけに參まゐらせん、一人にても子こを申もう(す)べし
 (文正さうし p.33) (의지동사)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추량」인 경우에 앞에 접속하는 용언이 의지동사의 경우가 무의지 동사인 경우보다 많았다. 또한 「권유·적당·명령」의 경우도 의지동사의 경우만 나타났다. 이것은 「추량」인 경우에는 무의지 동사가 많고, 「권유·적당·의지」 경우에는 무의지 동사가 많다고 하는 아키토모(秋本, 2001)의 견해와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아키토(秋本, 2001)의 정의에 따른 의미 분류의 조건만을 고려하여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사의 성질 그 자체로 파악하기 보다는 문맥에 나타나는 주어 또는 문맥상의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쿠치(菊知, 1996)도 언급한 바와 같이 「む」직전에 오는 조동사의 관계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쿠치(菊知, 1996)는 와다(和田, 1993)의 연구를 언급하며 다른 조동사와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와다(和田, 1993)는 완료의 조동사 「ぬ」와 접속하기 쉬운 동사 중, 「逢ふ」「待つ」「着る」「至る」「申す」 등에 「む」가 접속할 때는 의지가 우세하고, 추량은 상대적으로 열세이며, 「恋ふ」「忘る」「越ゆ」 등에서는 추량이 우세하고 의지가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앞에 접속하는 동사의 성질과 함께, 「む」직전에 오는 조동사와의 관계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마치며

본고에서는, 무로마치 시대부터 에도(江戸) 초기에 걸쳐 성립된 『오토기조시(御伽草子)』를 자료로 하여 「む」의 특징 및 의미 용법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む」의 의미가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4가지 의미 중 「의지·결의·희망」과 「추량」의 의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의지·결의·희망」의 의미(65.3%)에 비해 「추량」의 의미(21.2%)는 사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는 「む」의 어형 변화한 형태인 「う」가 근세 후기로 갈수록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진 것과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에도(江戸) 시대 전기 이전에도 이미 「む」의 주된 의미는 「의지·결의·희망」이었다는 것을 시사 해준다. 즉, 「む」의 형태 변화 형태인 「う」가 근세 후기에 「의지」의 의미만을 나타내게 된 배경에는 「む」의 의미가 주로 「의지·결의·희망」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む」의 의미 용법을 분류하여 그 앞에 접속되는 동사의 성질(의지동사 또는 무의지 동사)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할 경우, 일반화 도출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동사의 성질 외의 타 요소와의 유기적인 상관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쿠치(菊知,1996)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앞에 접속되는 동사와 함께 「む」 직전에 오는 조동사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상 『오토기조시(御伽草子)』에 나타난 「む」의 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금후의 과제로서는 에도(江戸) 시대의 각 시기(전기, 중기, 후기)의 자료에 나타난 「う・よう」를 비교·분석하여 의미용법의 변화 양상을 좀 더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한다. 또한 「む」의 의미용법을 분류하는 기준과 기준의 설정 방법에 있어서도 선행연구에 나타난 분류방법의 결점을 보완하여 고찰하고 싶다.

참고문헌

- 秋本守英·山口明穂 (2001) 『日本語文法大辞典』 明治書院 pp.768-769
 『御伽草子』(1958) 古典文学大系38 岩波書店
 菊知芳子(1996) 「古代日本語の助動詞「む」の研究」 『人文科学研究』 第5号
 佐藤喜代治(1977) 『国語学研究辞典』 明治書院 pp.600-602
 和田明美(1993) 「助動詞〈む〉の意味(一)」 『愛知大学 文学論集』 第102輯